

#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 여성평생교육과 대학의 역할

김지자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 1. 지식기반사회의 특성과 미래의 전망

1999년 7월 23일자 여성신문에는 “여성정보화지수를 점검한다” 시리즈의 세 번째로 ‘여성 포탈 사이트’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여가, 육아, 직업 등 여성 포탈 사이트는 여성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성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또한 주요 메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Women21’은 산부인과 전문가 상담… 등을 여성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여성신문, 1999) 비야흐로 지식기반사회가 여러 가지 관심과 문제를 동반하며 우리 생활의 한 모퉁이에 등자를 들고 있다. 단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식기반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칭하는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념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계 연수중인 교사들에게 지식기반사회를 어떤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그들은 지식기반사회를 전문성이 최대로 신장이 되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사회라고 답하고 있다.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 것 같다. 필자는 지식기반사회란 용어와 개념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주변에서 비교적 공유되고 있는 정

의를 인용, 이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 또는 ‘지식이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지위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심요소가 되는 사회’로 정의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의 특징은 종래의 일부 계층이 전유물처럼 소유하던 ‘자기 성찰적 지식’이 아니라, 다수가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며 일상적 활동과 관련된 ‘일상적 지식’으로서 이러한 일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가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지식기반사회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며 확산할 수 있는 사회로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인이라 함은 지식을 독점하듯 소유하는 특수 계층으로서의 엘리트층을 지칭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그 때 그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면 모두가 지식인이라 일컬어진다. 때문에 이를 ‘신지식인’이라 표현하기도 한다(장승권, 1999).

컴퓨터와 위성통신 등 첨단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멀티미디어기술의 융합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웹 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하여 국경 없이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은 이미 21세기에 돌입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하부구조가 상당

한 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전산화(computerization), 연계화(networking), 유연화(flexibility), 사이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식기반사회의 실체는 점차 확고하게 도래하게 될 전망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그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에서는 어느새 탈 정보화사회, 또는 후기 지식기반사회의 담론이 일고 있다. "21세기 인간지성의 과제"란 글 속에서 물리학자 장희익 교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적 추구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은 기술적 활용을 위한 도구로서 이해되어 지는 '힘'으로서의 지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물을 바로 파악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눈'의 구실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장희익, 1999).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비전없이 추구되어지는 지식과 기술이 환경 및 생태계의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적 활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 즉, 모든 지식과 지혜가 생태계의 파멸을 줄이거나 모면하기 위한 대안의 강구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도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될 "know-what"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부터 점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즉, "know-how"의 체득에 비중을 맞춰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 지식인가를 가름하는 소위 "know-why"의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가 걸려져야 할 당위성이 시사되고 있다.

## 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의 재조명

세계화-지구촌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 여성들이 민첩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형편없는 낙오자가 되기 쉽다. 여성들은 대부분 기계나 컴퓨터를 두려워하고 특히 복잡한 멀티미디어의 조작이나

활용 등 기술적 "know-how"에 극히 취약한 집단이다. 여성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과 기기가 지식기반사회로 옮겨가는 데 필수적인 관문이 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까지도 사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 채 주변적인 위치에 자리해 오던 여성들에게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부적응자 또는 낙오자로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생교육 활동에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의 각 분야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극히 짧다. 아마도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경제성장이 일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 역할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저임금의 값싼 노동이나 극히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정된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일부 전문직 여성들이 남성들이 선호해 온 일에 취업하고는 있더라도 아직은 하위의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1998 여성백서』 참조).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일 등은 아직도 남성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돌입하면서 여성들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여성들의 지위는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 인력의 낙후는 사회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인류 사회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의식에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신지식인으로서의 여성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의 창조자, 공유자, 활용자로서의 역할에 모든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로 여성들은 그들 특유의 관용적 성품을 살려 인류의 문

명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회생시키는 '환경지킴이'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평생학습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 3.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여성평생교육 영역과 저해요인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활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평생교육의 주요 영역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지식인으로서의 여성의 정체감 확립을 위한 교육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유지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책무성 및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지식인으로서 정보화, 전산화, 연계화, 유연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 신장시키는 교육 넷째,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의식 및 가치관의 교육 등이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여성평생교육의 전개 및 제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저해요인들이 가로놓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저해요인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취업이나 정치·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편견, 심지어는 여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아직도 사회의 구석구석에 팽배해 있다. 부모, 배우자,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 등이 여성들의 지식기반사회 구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부정적인 태도 또한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여성들의 지식기반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경제 및 제도적 지원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전산화, 연계화를 위한 기본적인 지

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크게 열려 있지 않다는 점과 여성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제가 미흡하고 새로운 기술연마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로,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주부들의 경우,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육아교육 시설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지 못한 점 등은 여성의 지식기반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커다란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

### 4.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여성평생교육의 과제

사실상 여성들로 하여금 지식기반사회가 과연 어떠한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여성들은 어떻게 지금까지와 달리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일 자체도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난감하기까지 한 여성평생교육의 과제이다. 그러나 여성들뿐 아니라 남녀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책과 운동 그리고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여성평생교육의 과제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모아야 할 과제의 하나는 평생교육의 대상에 관련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여성평생교육은 기존의 지도층의 여성들뿐 아니라 각 계층의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로 하여금 지식기반사회의 필연적인 도래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여성들의 준비 및 의식개혁이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실제적으로 여성들을 컴퓨터와 각종 통신기기 등과 친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여성들은 기계를 다루는 일에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기계를 가까이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성인 여성들로 하여금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등에 가까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맹 혹은 통신기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각종 정보와 지식을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습득하고 이렇게 습득한 정보에 의미 있는 분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과 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교육과정이 제공됨으로써 여성들의 신지식인화 과정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 5. 여성평생교육과 대학의 기능 변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학의 위상과 교육도 전통적으로 강의에 출석하여 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학점을 따는 구태의연한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명문대학의 강의를 받고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학생이 될 수 있게 바뀌어 가고 있다. 결

국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설계하고 학습하는 (self-designed learning) 평생학습의 교육혁명이 눈앞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면서 대학도 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방안은 대학이 이제까지 지녀왔던 전통적인 교육기능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학생으로 입학한 여성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폭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학 내의 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식기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의 역할은 자기 대학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기능이 확장되어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 외에 직·간접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설과 설비 인력, 교육의 내용 등을 개방하여 대학이 명실공히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새로운 기능 변환을 가져와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혹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설기구를 마련하여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훨씬 수월하게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강화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여성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에 선행되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이용한 지식사회기반 구축에 대비하는 여성 평생교육은, 아마도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접근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명문여자대학교의 평생교육 강좌가 일반 여성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강

화하여 여성들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시키는 데 크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대학이 여성평생교육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간 강좌를 개방할 수 있다. 대학간 학점교류 혹은 학점의 인정제도 등의 도입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강좌를 타 대학에서도 이수하도록 서로 길을 터 줌으로써 복잡한 절차나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계절 학기나 방학중의 강좌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와 산업대학 등의 강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도록 촉구하는 대학의 기능중 가장 유망주로 떠오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웹과 인터넷의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다. 여성들이 이와 같은 정보원을 찾아가고 그 안에 담겨진 정보를 습득하여 본인들의 필요에 맞도록 재구성과 재창조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미래사회 대학의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강인애,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수·학습환경", 『교육마당 21』, 1999년 6월호, pp.54~57.

김문조,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향하여", 『교육마당 21』, 1999년 4월호, pp.30~33.

이지혜, "여성정보화지수를 점검한다", 『여성신문』, 1999년 7월 23일자, p.6.

장희익, "21세기 인간지성의 과제", 『공선연구소』, 통권 제38호, 신사 회공동선운동연합, 1999년 6월 20일자, pp.4~8.

정진곤,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수·학습목표와 내용의 혁신", 『교육마당 21』, 1999년 6월호, pp.50~5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여성백서』, pp.260~275.

#### 김지자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동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국립 필리핀 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사회개발을 전공하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방송 뉴스부 기자와 가족계획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지웅 교수(서울대)와의 공저로 『지역사회개발론』, 『사회교육학개론』, 『자기주도학습의 길잡이』 등을 펴냈다. 한국여성사회교육회의 초대 회장장과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 걸스카우트 서울 연맹장으로 봉사하고 있다.